

일 주 문

불국사 자원봉사단 3천만원 기부
불국사 자원봉사단 대표 총장 스님은 이 8월 13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으로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군중교구 하계 정기교육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은 8월 11~14일 가평 백련사에서 예비군승 60명을 대상으로 2014하계정기 소집교육을 진행했다.

실상사 세월호 천일기도단 조성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은 8월 30일 실상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을 개최한다.

민추분 7차 월례간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8월 13일 '북한 TV 단막극으로 본 주민 생활'이라는 주제로 7차 월례간좌를 개최했다.

화백포럼 특별강연
송석구 前통국대 총장은 8월 13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주 화백포럼에서 '행복은 나의 창조'를 주제로 강연했다.

금강대 여름방학 어린이영어캠프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15일 금강대에서 논산 지역 학생 45명을 초청해 여름방학 어린이영어캠프를 개최했다.

동산불교대 11회 명사초청법회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8월 30일 서울 동산불교대학에서 '전통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11회 명사초청법회 강연한다.

진흥원 창립 39주년 기념식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3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창립 39주년 기념식과 2014 대원문화의달 발표회를 개최했다.

언론인불자연합회 수련대회
정일태 언론인불자연합회장은 8월 21일 여의도 포교원에서 8월 정기법회를, 8월 30~31일 죽서사에서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한다.

국제선센터 간화선법회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8월 2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마음 현상탐구, 가치를 바탕으로 원음세우자' 특강을 진행한다.

“네팔 밀교 원류는 금강계 만다라”

네팔인 최초로 위덕대서 불교학 박사받은 나빈 법사



‘금강경 만다라’ 신앙 근원 밝혀 2001년부터 진각종 중비장학생 ‘한국과 네팔 문화교류 앞장 설 터’

네팔에서 불교 있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한국에서 꽃을 피웠다. 네팔인 최초로 한국의 불교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가 탄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나빈 법사다.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로 유명한 네팔은 ‘티베트불교의 아버지’ 파드마삼바비를 비롯해 수많은 고승들을 배출한 역사가 무척하게도 근대에 들어 인도 힌두교에 밀려 승가가 붕괴되고 수행 전통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나빈 법사가 한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네팔불교협회와 진각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빈 법사의 은사인 나레시만 교수는 네팔 최고대학인 국립 트리부반대학교에 불교학과를 설립하는 등 현재 네팔에서 불교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인도 델리대 불교학과 수석시절 동기인 진각종 무애정사를 비롯한 진각종의 지원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공부를 마치고 카투만두로 돌아간 나레시만 교수는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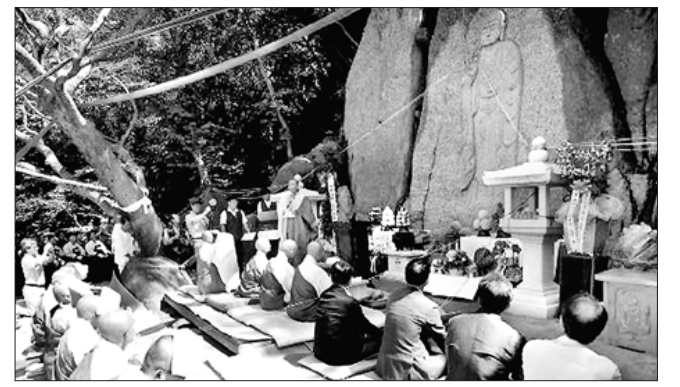
구호단체 JGO를 설립해 진각종과 네팔에서 구호활동을 통한 포교에 나섰고, 이어 국립대에 불교학과를 설립했다. 지속적인 유대관계 하에 진각종은 나레시만의 제자인 나빈 법사를 중립대인 경주 위덕대로 초청해 박사과 길러낸 것이다. 나빈 법사는 2001년 한국에 건너와 위덕대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

번 봄학기에 ‘네팔 밀교, 금강계 만다라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빈 법사는 이번 박사 취득에 대해 한국에서 네팔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빈 법사는 “네팔 불교는 부처님 재세시 전해진 불교로, 현재 밀교의 대명사가 된 티베트 밀교보다 순수하다”며 “대승불교인 한국불교 안에도 밀교 요소가 있기에 많은 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불교의 접합점을 찾고 싶고 싶다”고 말했다.

나빈 법사는 논문 주제인 ‘금강경 만다라’에 대해 “우리가 불상, 불탑, 사찰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그 근원이 바로 금강경 만다라”라며 “4세기 경 전해진 네팔 밀교의 모습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향후 나빈 법사는 네팔 이주민을 위한 법회 활동과 강연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네팔에서는 JGO활동도 활발히 펼친다. “네팔불교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많이 남아있기에 부처님 당시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불교에 소개해 보다 많은 이들이 네팔 불교, 그리고 밀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 불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부석사 마에아미타불 점안법회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8월 9일 마에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중앙총회의원 정법 스님, 이완섭 아산시장, 김제식 국회의원, 김흥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마에아미타불입상은 높이 4.5m, 폭 1.5m로 산신각 인근의 자연석 바위에 조성됐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우란분절 49일 기도 회향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8월 10일 우란분절(백중) 49일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회향 당일에는 진여문 앞에서 영가를 청정도량으로 모시는 시련의식부터 영가를 위로하고 죄업을 씻어내는 대령·관욕의식이 진행됐다. 회향법회에서는 주지 원학 스님의 천도법문 ‘부모은중경’과 천도제가 진행됐다. 앞서 원학스님은 입재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천도법문(부모은중경) 설하며 불자들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백중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전달

8월 13일, 비구니 학인 스님 5명에 각 500만원씩



전국비구니회가 설립한 법륜비구니장학회(이사장 명성 스님)가 8월 13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륜사 2층 접견실에서 ‘제 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법륜비구니장학회는 자성·유신·지공·설경·성법·도일 스님 등 5명의 비구니 학인 스님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명성 스님은 장학금을 수여한 뒤 축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를 받은 뒤에 어떻게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행과 학문을 열심히 연마해서 한국불교의 희망이요 동량이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명우 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 계환 스님(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동국대 도서관장), 이인자 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더불어 사는 사회되도록...”

조계종 화쟁위 3기 출범... 14일 위촉장 수여



2010년 발족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3기 출범을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4일 3기 화쟁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화쟁위원회는 도법 스님(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지홍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안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흥선 스님(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정문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덕산 스님(결사총괄부장), 초우 스님(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김종민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전 검찰총장, 전 봉은사 신도회장), 성태용 건국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 자리에 자승 스님은 “화쟁위원회 3기는 1기와 2기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의 갈등과 다툼을 말리고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촉식 이후 3기 화쟁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도법 스님과 부위원장에 지홍 스님과 김종민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3기 화쟁위원의 임기는 2014년 7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신성민 기자

기름 유출 피해 지역서 봉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여수희망프로젝트-여수 바다를 지켜라!’(이하 여바라)를 7월 31일~8월 1일 진행했다.

‘여바라’는 올해 1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희망을 잃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모인 청소년 봉사활동프로그램이다. 신덕마을 주민들은 “어리게만 봐왔던 청소년들이 기특한 마음으로 우리 마을까지와서 이렇게 예쁜 벽화를 그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시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본산 제종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 43번길 13-11 (제동리 321-2번지)
전화 : 055)295-5100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